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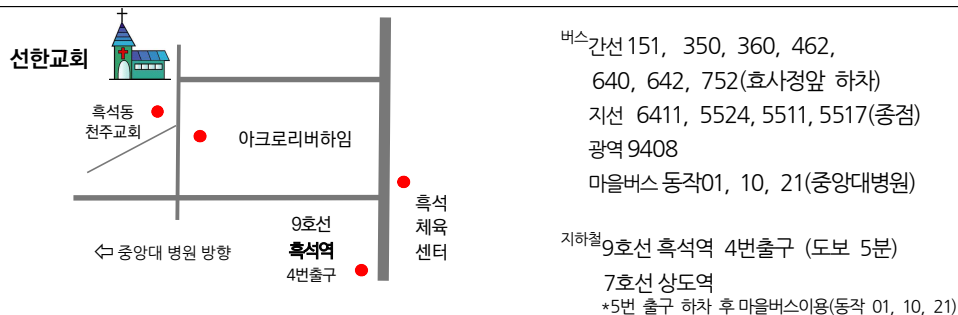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협력 선교사	강 성 규 (러시아)
	교육목사 권 인 혁	국 내 선교사	오 인 숙, 한 배 선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조 윤 익, 박 영 근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 18:10)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실 천 사 항 지역봉사 전도 / 기도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1)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37장	
교 독 문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찬 양 과 경 배	421장 (통일찬송가 210장)	
예 배 기 도	윤호중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요한일서 3장 4절 ~ 9절	
설	교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서창덕 손영삼 심인섭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선한 능력으로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오 일 후	오후 3:30		예배장소 : 본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대 표 기 도		오성애 집사	
	말	씀	종말론 1강 (마 4:17)	
			종말의 시작과 완성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5:1-11)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각 부 서 총 회 11월 24일(주일)까지 각 부서 총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 찬 식 다음 주일(1일) 2부 예배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3. 성탄준비위원회 모임 일시 : 오늘 2부 예배 후 1층 안디옥실
대상 : 교회학교 부장 및 각 자치회 회장

4. 떡 제 공 정영옥 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제공하셨습니다.

11월 오후예배 일정						
날짜		제목			강사	
11월 3일		성경오류논쟁 10강			임춘배 목사	
11월 10일		성경오류논쟁 11강			임춘배 목사	
11월 17일		성경오류논쟁 12강			임춘배 목사	
11월 24일		종말론 1강			임춘배 목사	
2019년 성경강론 범위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이사야 59장	이사야 60장	이사야 61장	이사야 62장	이사야 63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기를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내 판단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찬송 :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통 466장)

본문 : 마태복음 11장 25~30절

말씀 : 세상을 살아가면서 짐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말 못 할 무거운 짐을 마음속에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초대는 귀하 솔깃한 제안입니다. 그 '짐' 대신 '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고 그분의 제안이 농담일 리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서 예수님은 권능을 많이 보인 고을들이 회개치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바로 고라신, 벳새다, 가버나움 같은 도시입니다. 같은 기적을 두로나 시돈, 소돔에서 행했으면 그들이 깨닫고 회개했을 것이라 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들은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눈멀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대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깨닫고 따르는 지혜가 주어져 있음을 찬양합니다.(마 11:25) 그들은 사심 없이, 편견 없이,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았습니다. 지혜 있다는 자들은 기득권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 앞에 주저하며 이해득실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고, 기쁨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 대상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장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초대는 지금 고생하고 마음에 짐이 있는 사람만을 제한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초대장은 우리 모두를 부르신 제한이 없는 초청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말에서 한없이 넓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이 세상에서 각자의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수고의 멍에를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주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먼저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나도 그 초대의 대상이 분명한가. 내게 있는 짐과 수고의 내용은 무엇인가. 주님의 초청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수락할 것인가.' 우리는 이 초대 앞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역설적인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 초대를 받고 나니 엉뚱한 제안을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쉬러 왔는데 덜컥 멍에를 메게 하시는 것을 보고 속았다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를 살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말씀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멍에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유한 자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시 37:11)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체험(잠 3:34, 11:2)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멍에를 받아들일 때 그 옆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가 쉽고 짐은 가벼워집니다. 멍에를 뗐는데, 인생이 쉽고 가벼워지는 역설적인 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역설적인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됩시다.

은혜의 말씀

제 목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요일 3:4-9)

서 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본 론

1. 죄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

- (1) 주님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못함(6)
- (2)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9)
- (3)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8)
- (4) 과연 그리스도인은 범죄치 않는가?

2. 교훈

- (1) 우리는 어둠을 떠나 빛의 왕국의 시민이 되었다.
- (2) 주님안에 거하는 자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
- (3) 이제 우리는 죄를 완전히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

결 론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음을 알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윤호중 장로	유신웅 장로
헌 금 위 원	서창덕 손영삼 심인섭	류은영 방성자 배미자
오후예배 기도	오성애 집사	구문서 집사

매일 성경 강독		유다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	날짜 : 11월 25일
찬양	내 영혼이 은총입어 (찬송가 438장 / 통일 찬송가 495장)		
통독	이사야 59장		
본문 내용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상을 고발한다. 그들의 얼굴에는 죄가 붙어 있고 손에는 피가, 입술에는 거짓이, 혀에는 악독이 있다. 그리고 공의로운 판결은 볼 수 없고 평강은 사라지고 죄악이 만연하였다(1-8절). 이사야는 범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을 묘사하였고, 그들을 대신하여 중보의 회개 기도를 한다(9-14절). 여호와께서는 공의와 평화가 없어진 이 세상을 보시고 구원의 투구와 갑옷을 입으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셨다. 그러나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세우사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15-21절).		
생각해보기			
1	민의 죄악과 책망 (1) 1-15a절: 남유다의 죄악상은 각종 피흘림, 불의한 재판, 불의의 도모와 그 계획의 실행이고 그러한 죄악의 결과 남유다 사회에는 공평과 공의가 없고,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 모든 백성이 영적 소경 상태에 빠져 있게 됨. 무엇보다 이러한 죄악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막고 있다고 서두에서 강조함 (2) 15b-21절: 이사야는 회개 권면이나 심판 경고를 주지 않고 돌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모든 불의와 불공평을 시정하여 공의를 세우실 것이며,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백성에게는 구속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예언함 (3)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을 기쁘게 보신다. 모든 징계를 자기의 죄 탓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매를 맞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한다.		
핵심 단어	2절. 사이. '분리시키다,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본질상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을 구분 지을 때 주로 사용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반전될 그날을 바라는 믿음”
찬양과 기도	세상 모든민족이 / 저 장미꽃 위에 이슬 (442장/통 499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스기하라 치우네(1900~1986)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리투아니아 주재 일본 영사입니다. 1940년 7월 27일 아침에 리투아니아 일본 영사관 문밖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나치를 피해 폴란드로 도피한 유대인들이 소련과 일본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통과 비자 승인이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스기하라에게 세 번이나 비자발급 거부 명령을 내렸지만, 스기하라는 약자를 돕도록 교육받은 사무라이 집안 출신이기도 했고, 개종한 크리스천으로서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본국의 명령을 거부하고 비자 발급을 강행했습니다. 한 달에 300여 건 발급하던 비자를, 식사도 대충하고 잠도 못 자며 매일 300여 건 이상 발급했습니다. 1940년 8월 28일 일본 정부로부터 영사관을 폐쇄하고 귀국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비자 발급을 멈추지 않아 결국 6,000명이 넘는 유대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스기하라는 이 일로 1946년 외무성에서 불명예를 떠안고 면직당해 무명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968년 8월 재일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그를 찾는 연락이 왔습니다. 스기하라의 비자 발급으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그를 28년 동안 찾았던 것입니다. 1969년 스기하라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훈장과 거액의 감사 상금을 받았고, 1985년 일본인으로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최고 훈장인 야드바셈 상(외국인에게 주는 유대인 상)을 수상했습니다. 예루살렘 언덕에도 표창비가 세워져 ‘열방의 의인’, ‘일본의 오스카 윈들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요한계시록 14:14~20	
묵상포인트	우리의 인내와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탄의 권세에 성도와 교회가 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핍박과 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성도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특권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겪는 희생과 대가 지불은 하늘의 상급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잠깐 동안의 쾌락을 위해 타협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 힘써야 합니다. 반드시 반전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곡식을 추수하는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그가 쓴 ‘금 면류관’과 그가 손에 든 ‘예리한 낫’은 무엇을 의미하나요?(14~16절)	
적용하기	요한계시록의 주님 모습과 공생애 기간의 주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러한 주님을 아는 것은 내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함께 기도하기	주님의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위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려 삶 속에서 행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메시아의 심판		날짜 : 11월 22일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 통일 찬송가 455장)			
통독		이사야 63장			
본문 내용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던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옷이 붉은 것은 에돔에 있는 원수를 멸하고 오셨기 때문이다. 피로 얼룩진 하나님의 붉은 옷은 흡사 포도즙 틀을 밟은 자처럼 붉을 것이다. 비록 그날이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저주의 날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구속을 의미한다(1-6절).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들을 위하여 위로의 예언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능력을 보여 주셨지만 그들은 배반하고 말았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이다(7-10절). 이스라엘의 다양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선민을 보호하셨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한다(11-14절).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15-19절).			
생각해보기					
1		여호와 은총회복 간구 (1) 1-6절: 에돔을 대표로 하는 선민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언함 (2) 7-14절: 이사야가 선민의 구원을 간구하기에 앞서 과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 회고하고 동시에 선민 이스라엘이 반역하였을 때에도 그들을 징계하시긴 하셨으나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곧 권능의 손길로 구원하시고 안식과 영광을 베푸신 사실을 회고함 (3) 15-19절: 먼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택하신 선민의 아버지요 구속자가 되심을 고백한 후 현재 범죄로 인하여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실상, 곧 대적에게서 기업을 유린당한 사실을 말하고 속히 선민에게 구원의 은총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함 (3)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			
핵심 단어		2절. 포도즙 틀. 대적을 무찌르고 대적의 피로 물들인 옷이 마치 포도즙 틀에서 일한 사람과 같이 붉게 물들었음을 비유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시온에 임할 영광과 새 날		날짜 : 11월 26일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 / 통일 찬송가 470장)				
통독	이사야 60장				
본문 내용	본장부터는 종말과 관련하여 진리와 사랑과 성도들의 최종적 승리를 노래하는 부분이다. 지상 생활의 어두웠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여호와와 축복이 빛처럼 성도들을 비추이게 될 것이다(1-3절). 시온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풍요롭게 되고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4-9절).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시온을 쳤으나 이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시온이 새롭게 재건될 것을 말씀하셨다(10-1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영원한 영광의 도성으로 삼으실 것을 결정하셨다(15-18절).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해와 달이 빛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시는 시온의 찬란한 모습을 묘사해 준다(19-22절).				
생각해보기					
1	시온의 영광스런 회복 (1) 제60-66장까지는 장엄하게 시온의 빛과 영광의 시대의 도래를 선언함 (2) 1-9절: 구원 시대의 도래를 시온의 빛과 영광의 도래로 표현하고 세계 만민 중에 택한 백성들이 시온으로 몰려올 것과 그들이 가지고 온 풍부한 재물과 금은보화로 시온이 심히 풍요하게 될 것을 예언함 (3) 10-22절: 구원시대의 도래와 함께 세워질 예루살렘 곧 새 시온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의 약속과 이전의 징계시에 당한 선민의 비참함과 완전 대조되는 선민의 기쁨과 축복의 약속을 그리고 온 백성이 모두 의롭게 되고 영영한 영광을 얻게 됨을 기록함 (4) 성도들은 이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과 핍박들로 인한 고통중에도 메시야 왕국에서 누릴 영광과 풍요를 생각하며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핵심 단어	1절. 빛.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빛을 의미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메시아 시대에 있을 일	날짜 : 11월 27일
찬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483장 / 통일 찬송가 539장)		
통독	이사야 61장		
본문 내용	본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임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분이시다. 더욱이 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심을 강조하고 있다(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오래 전에 파괴된 성읍을 재건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아가 열방은 자신들의 부요함을 이스라엘에게 주며 이스라엘이 누리는 축복을 함께 나누려고 애쓴다(4-9절).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의와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10-11절).		
생각해보기			
1	메시아 구속사역 예언 (1) 1-3절: 여호와와 종의 사명 예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줌,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함,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줌 (2) 4-11절: 여호와와 종의 사역으로 시온에게 주어질 축복: 영원한 기업의 회복, 세계 만민에 대한 제사장 신분 획득, 풍부한 물질적 축복과 영광 획득 (3)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아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하신 사역을 우리도 이어받아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야 한다.		
핵심 단어	3절. 찬송의 옷. 성경에서 절망에 빠진 자는 삼베 옷을 입는다고 자주 비유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새 시대 백성의 의무	날짜 : 11월 21일
찬양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 / 통일 찬송가 259장)		
통독	이사야 62장		
본문 내용	본장의 대부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회복하실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새 이름 즉 의와 구원 또는 영광으로 불릴 때까지 예루살렘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신다(1-5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된 나라인 예루살렘은 다시는 원수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과 능력으로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6-9절).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수축하라 수축하라라는 등 상황의 긴박함이 엿보이는 말이 자주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메시아의 임박한 진노를 알게 한다(10-12절).		
생각해보기			
1	시온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1) 1-5절: '나'로 등장하는 여호와와 종 곧 메시아는 시온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중보자임. 메시아의 중보 사역은 ①시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격을 가질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의와 영광 및 새 이름을 주고 ②여호와로 하여금 시온 백성을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과 왕관처럼, 시온 백성의 기업을 헵시바와 불라로, 처녀와 신부로 취하실수 있게 하시는 것 (2) 6-12절: 예루살렘 성 곧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두가지 사명: ①종일 종야에 쉬임없이 여호와께 간구하되 예루살렘이 속히 세워지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해야함 ②시온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속히 여호와와 거룩한 백성 곧 성도가 되게 해야 함 (3)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축복이 우연한 기회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예비하신 바에 따라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한다.		
핵심 단어	4절. 불라. 이 용어는 결혼했다가 이혼당한 여인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본문에서는 한번 버림을 받았으나 다시 용서함받은 이스라엘의 신분을 암시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